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2018. 5. 27.(나해) 제2107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u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테레사 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20)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저는 교구 청소년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만나게 되는 경우도 거의가 당일 또는 1박 2일의 연수나 교육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흘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해외봉사활동이나 4,5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해외성지순례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경험하며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 중에는 간혹 청소년들을 두고 ‘버릇이 없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성격이다.’, ‘덩치만 크지 아직 어린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의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겠지만 어른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없이 혼자 커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른들 스스로 청소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없이 혼자 큰 것은 청소년들의 의지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청소년들도 여럿이 함께 모이면 그 안에서 자신의 몫을 합니다. 작년 여름 청소년들과 함께한 일본 성지순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개인으로써 봤을 때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함께하는 일정 동안 고등학생들은 형과 누나의 몫을 다하였고, 중학생들은 동생의 몫을 다하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버릇없고 이기적이라고 어린애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전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일 뿐,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몫을 잘 해내었습니다.

어른들의 기준으로 청소년들을 보면 한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부족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과는 다르지만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 나가고, 느리지만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갑니다. 물론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바라볼 때, 청소년들이 어린 세대보다는 시행착오를 덜 겪고 그 길을 잘 걸어가기 바라지만, 이 또한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더 큰 시련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고, 우리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청소년들 또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자신의 몫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청소년들을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청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저희 청소년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시어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

황성재 프란치스코 신부 | 청소년국장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루카 1,30)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교회는 올해, “하느님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소중한 선물”인 청소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와 고유한 소명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루카 1,30)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였던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관하여, 혹은 ‘부르심’에 관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주하는 각자의 두려움을 숙고하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 안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 안에 갇혀 있지 말며,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근본적인 선함을 믿는 것이며, 어떠한 혼란의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이끌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의혹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밀어닥칠 때는 식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양심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욱 성실히 경청해야 하며, 동시에 바깥세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창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제한되는 단절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진실하고 구체적인 체험들로 공유될 수 있도록, 현실의 사람들과 맺는 의미 있는 관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느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마리아야!”하고 부르시듯,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젊은 마리아는 바로 그 젊음 때문에 구원 역사 안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았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에 이제 청소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슬픔과 고통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순수한 젊음의 열정을 사회적 약자에게 한껏 쏟으십시오. 그러면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마리아에게 내리셨던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그리하여 ‘알 수 없는 내일’은 암울한 위협이 아닌, 여러분의 숭고한 소명으로 엮여 교회와 세상 안에서 서로에게 공명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이야기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 교회는 언제나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열렬히 지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2018년 청소년 주일은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청년 대회와 2019년 1월에 파나마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또 다른 발걸음입니다. 주님과 교회와 세상은 여러분 각자가 지상의 삶에서 받은 고유한 부르심에 대해 두려움을 이겨 내고, 마리아처럼, “네.”하고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미래와 소명을 식별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십시오.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잔치인 청년 대회에 여러분을 모두 초대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주교



영화로 하나 되는 소공동체 봉덕성당 미디어 프로그램

오재창 안토니오 | 봉덕성당 홍보위원장

소공동체 운동이 21세기 한국교회의 대안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본당에서는 교우들의 문화체험을 통한 소공동체 모임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을 통해 각자의 취향과 연령에 맞게 소공동체 모임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소공동체의 활성화와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저희 본당에서는 지하 강당에 영화상영이 가능한 빔프로젝터와 양질의 오디오를 설치하여 가칭 '미디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영화상영을 통해 교우들의 화합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특별한 기적을 만든 99cm 소년의 이야기 '리틀보이'를 시작으로 영화보다 주제곡이 우리 귀에 더 익숙한, 진리를 따라 세상을 밝힌 선교사들의 기적 같은 감동실화인 '미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문을 활짝 연 교황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다큐영화 '성요한 23세 교황'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지하 강당에서 말로만 듣던 영화에 몰입하는 교우들의 모습은 매우 신선했고 영화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본당 행사만 치러지던 공간이 영화로 함께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 혹은 소공동체라는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화를 공유했고 감동도 공유했기 때문이라 여겨졌습니다.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이 되는, 말 그대로의 소공동체였습니다.

반모임을 참석하면 '말씀나누기'라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만큼 귀중한 시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공동체의 역사를 바꾼 인물을 접하는 순간에 오는 감동은 이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의 감동인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갖는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본당 '미디어 프로그램'의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이 짐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사순 시기가 빨라 영화상영이 조금 미루어져 6월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주목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시간이 아님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그들이 세례성사를 받기 전이라도 본당의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생각을 공유하면 우리의 공동체 혹은 소공동체의 당연한 목표인 선교에도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필름**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일괄 사죄 一括赦罪 <라> absolutio generalis <영> general absolution

개별 고해와 사죄가 불가능한 위급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83항; 교회법 제961-963조 참조)

임무 任務 <라> munus <영> commitment, engagement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는 ministerium은 “봉사”나 “봉사 직무”라고 하되, 성직자가 하는 ministerium을 구분하여 말할 때에는 “교역”(따라서 minister는 교역자, clericus는 성직자)이라 하고, 되도록 officium은 “직무”, munus는 “임무”라는 말로 씁니다.

임신 妊娠 <라> conceptio, praegnatio <영> conception, pregnation

교회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의 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conceptio를 “잉태”나 “수태”라 할 때에는 오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간 생명의 시작을 가리킬 때에는 위치 개념(胎)을 지닌 “잉태”나 “수태”라는 용어 대신에 “임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임종 세례 臨終洗禮 <라> Baptismus in proximo periculo vel in articulo mortis

<영> Baptism in proximate danger of death or at the point of death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 간략한 예식으로 주는 세례로, 주로 교리 교사 등 평신도가 집전하지만, 사제나 부제도 집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죽음의 순간에는 다른 예식을 모두 생략하고 자언 수를 병자의 머리에 부으며 성사 양식문을 말하면 세례가 수여됩니다.

입교 성사 入教聖事 <라> Initiationis Christianae Sacramenta

<영> Sacraments of Christian Initiation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때에 받는 세례, 견진, 성체 성사들을 “입교 성사”, 또는 “입문 성사”라고 합니다.

자비송 慈悲頌 <라><영> kyrie

「미사통상문」;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2항 참조.

미사의 참회 예절 때 우리의 부당함과 연약함을 탄원하며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하고 바치는 기도입니다.

자선 慈善 <라> elemosyna <영> almsgiving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애궁시사”(哀矜施捨)라고도 하였습다. 이를 “애궁”(哀矜)이라고 줄여 쓰는 관행은 도와주는 행위(시사[施捨])가 빠져 있는 말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관문**

<발췌_ 천주교 용어집(2017)>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신명 4,32-34,39-40 **제2독서** 로마 8,14-17 **복음** 마태 28,16-20.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교구장 동정



총대리 동정

5. 20(일) _ 계산성당 견진성사

5. 20(일) _ 삼덕성당 견진성사

5. 23(수) _ 문인회 글·그림전 개막식

5. 21(월) ~ 6. 3(일) _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대교구

5. 26(토) _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방문 및 들꽃마을 축복식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대상: 65세 이상 남녀 / 선착순 45명 **피정비:** 6만원 ※ 교구 버스 이용 하실 분은 별도 1만원

신청방법: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dgfamily@dgca.or.kr 또는 팩스 (053)250-3078

차수	피정날짜	신청마감	장소
제3차	7.4~5 (수, 목)	6.24(일)	베네딕도영성관
제4차	8.29~30 (수, 목)	8.19(일)	한티피정의집
제5차	10.17~18 (수, 목)	10.7(일)	한티피정의집
제6차	11.14~15 (수, 목)	11.4(일)	베네딕도영성관

WYD(World Youth Day, 세계청년대회) 파나마



일정: 2019. 1. 14(월) ~ 2. 1(금) / **마감:** 2018. 5. 31(목) 선착순

참가비: 450만원 / 5번의 준비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문의: 청년국 사무실, (053)422-6692

※ 자세한 사항은 청년국 홈페이지(<http://www.dcy.co.kr>)를 참조해 주십시오.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28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5월 30일(수) 19:00 평화성당 소강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6월 1일(금) 19:00 용강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6월 2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오순절평화희마을 5월 후원회미사	5월 28일(월) 11:00 수성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6월 2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토, 일
 장소: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경북 왜관)
 문의: (010)8353-2323, 페이스북 '베벳방'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김낙윤 신부, (010)2730-869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6.3(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일시: 6.9(토) 12:00
 장소: 대구 파티마병원
 대상: 중·고·대학, 일반 미혼 남성
 문의: (010)3894-1332 / (010)7427-4627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6.2(토) 10:00
 일정: 찬양미사, 고해성사, 안수
 특강: 문봉한 신부
 서틀: 영남대 4번 출구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소보동지 효소단식 피정

6차: 6.5(화)~7(목)
 7차: 6.12(화)~14(목)
 비용: 1인 25만원
 신청: (054)382-0260

향심기도 2박 3일 소개 및 심화 피정

일시: 6.8(금)~10(일)
 장소: 논산 씨튼영성의집
 강사: 윤행도 신부, 장미자 자매
 문의: (02)421-1968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시: 6.12(화), 발칸반도
 경비: 375만원(11박 12일)
 일시: 8.7(화), 성모님 발현지
 경비: 429만원(12박 13일)
 문의: (02)2281-9070 / www.ctour.org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야마구치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여름연수

일시: 7.11~14, 가톨릭대 성심교정

주제: 새 로마미사경본 총지침 해설
 내용: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성악 등
 교수진: 최호영, 임석수, 신기호 신부 외
 비용: 40만원 / 신청: (010)4513-7605

제52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평화로운 아일랜드에서 영어연수
 대학생: 7.1(일)~8.12(일)
 일반(30~75세): 7.8(일)~8.19(일)
 설명회: 5.12(토) 14:00, 대명성당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치매, 중풍 어르신 요양원입니다.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김&송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656-9911
010-2008-2329

경일신경과·내과

대표전화 053) 652-2525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홀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 치매 / 뇌졸중 상담 268-2525
- MRI 예약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환원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원장/전문 의 김영섭(베드로)
소화기·내시경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가람소방방재(주)

-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현씨노비저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여성 전문 의료 기관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오실금클리닉

산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5

3.0T MRI, CT / 위, 대장 내시경
공단검진 지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백영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행사 | 모임

2018 상반기 말씀잔치
 일시: 6.23(토) 14: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7층 대강당(대명동) / 신청비: 없음
 대상: 성서모임별 학생, 본당참가 희망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성김대건성당 독서콘서트
 일시: 6.2(토) 11:00
 주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의 멘토 아우구스티누스
 강사: 가톨릭대학교 박승찬 교수
 문의: 성김대건성당, 742-2504

2시의 파이프오르간 콘서트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범어대성당에서 아름다운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합니다.
 문의: 범어대성당, 744-1394

가톨릭 미용인회 빛모임
 일시: 5.28(월) 20:00
 장소: 교구 가정사목국
 대상: 가톨릭 신자인 미용인 모든 분
 문의: (010)9516-7090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위해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5.31(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교육 | 모집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하계 프로그램연수
 일시: 6.18~7.9 매주 월 10:00~15:00
 장소: 교육원 다동 대강당
 대상: 본당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마감: 6.8(금) / 신청비: 3만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제121차 선택주말
 일시: 6.29(금)~7.1(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35세 미만 미혼
 문의: 교구 청년국, (010)2745-7857
<http://www.dcy.co.kr>

제4기 청소년 해외 성지순례단 모집
 일시: 7.21(토)~24(화)
 장소: 중국 상해, 항주
 대상: 주일학교 중·고등부
 금액: 90만원 / 마감: 6.5(화)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대가대평생교육원 발성과 합창 교실
 일시: (월, 목) 19:00 수시접수
 장소: 대구캠퍼스(용산역 4번 출구)
 문의: 660-5555 / (010)3512-0099

포콜라레 하루 마리아폴리
 일시: 6.6(수) 13:30~17:30(미사로 마침)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 회비: 5천원
 문의: 651-2739

관덕정 영성 특강
 일시: 6.2(토) 16:00
 강사: 김광엽(세례자요한)
 (문화와 영성 연구소장)
 문의: 관덕정, 254-0151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장구, 사범자격과정꽃꽂이, 오카리나, 왕초보영어, 체대꽃꽂이, 다레, 성가반주 오르간, 자세교정 요가, 수지침, 발성법, 가곡성가, 규방공예, 원어민영 어초급반, 프리토킹반 / 신청: 254-6115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마르셀로 누네스(말셀로)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방법: 전화 및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8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34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랑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일 (아 베 스)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통족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제일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대구연세안과
 ·백내장수술 ·아이디자인 라식
 ·노안 수술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연세대외래교수
 ☎053)626-8881~5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관(지붕개량)
 시스템 냉·난방기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사랑나무의원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하이마트 만촌점 옆)
 ◆ 말기암 통증/중상 완화
 ◆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 돌봄
 ※ 재능 및 기타 자원봉사자 상시모집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 상담/입원 053)217-9500